

5/22/16

설교 제목: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려면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창세기 22:1-18

- (창 22:1)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절관주** 히 11:17
- (창 22: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 (창 22: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 (창 22:4)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 (창 22:5)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 (창 22: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 (창 22:7)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 (창 22: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 (창 22:9)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 (창 22: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 (창 22:11)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 (창 22: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절관주** 창 26:5

- (창 22: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 (창 22: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 (창 22:15)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 (창 22:16)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 (창 22: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갈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 (창 22: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성서 학자들이 신약과 구약에서 각각 하나씩 손꼽는 최대 사건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고  
구약에서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갈보리 산과 모리아 산이 동일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변 보다 약간 더 높은 언덕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솔로몬 성전, 스톱바벨의 성전, 헤롯 성전이 서 있었던 곳이며 지금은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소유했던 커다란 반석이 있는 타작 마당이었는데 다윗이  
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 생활을 했기에 풍요와 비를 주관하는 바알 신을 숭배 했으며 따라서  
마을을 세울 때 전통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 옆에는 타작 마당을 만들어  
놓곤 하였습니다.

다윗이 산 오르난의 타작 마당도 바알 신당과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이 타작 마당을 다윗 왕이 사서 후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준비하였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수 천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 앞에 숙연해질 뿐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보여 주는 강력한 예표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여 즉 번제물로 바쳐져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함으로써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계획을 본 사건을 통해 계시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이라고 하시지 않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셨을 만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자기 생명 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아들, 나이 100 세가 되어서 겨우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달라고 그것도 번제물로 달라고 하십니다.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어떻게 바치라는 것인지 아십니까?

(레 1:4)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 1:5)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레 1:6)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뜸 것이요

(레 1:7)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 놓고

(레 1:8)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뜸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여 놓을 것이며

(레 1:9)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일단 번제물을 잡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죽인 번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가죽은 벗기고, 살은 토막을 내 각을 뜯니다.  
내장도 꺼내고 다리도 잘라서 씻은 후 이 모두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많은 명분들이 있었습니다.

인신 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당시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고 있던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씨족이나 부족 전체가 전멸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사람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당시 몰락 신을 섬기던 이방인들도 자식을 신에게 바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도 자신의 아들을 이방 신에게 바쳤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심청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철저히 금지 시키신 분입니다.

아니 금지 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인신 제사를 지내는 자를 죽여야 한다고 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아마도 내가 마귀의 음성을 들었나보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이를 죽이라는 말씀은 들을 수 없다. 아버가 되어서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 않는가?’

등등 명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타부타 아무말도 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나귀에 싣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번민과 고통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왜냐고 묻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이런 식으로 죽어야만 하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묻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런 혹독한 시험 속에서 순종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창 22:7)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창 22: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은 3 일 길을 간 후 모리아 산이 보이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로도 알 수 있습니다.

(창 22:5)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Genesis 22:5) He said to his servants, "Stay here with the donkey while I and the boy go over there.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I and the boy go over there.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I will be back 이 아니고 we will be back 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삭과 함께 돌아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 11: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 11:18)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히 11:19)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의 비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신지 25 년 이란 세월이 지나 아브라함 나이 100 세가 되어서, 사라의 나이 90 세라 경수가 다 끊어져 그들이 힘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주신 이는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탄생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건, 심지어 팔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고지 곧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져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려 내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해 제단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창 22:9)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주석가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를 17 세 정도로 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117 세 입니다.

17 세의 혈기 왕성한 청년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117 세의 힘 없는 노인 하나를 뿌리치지 못하겠습니까?

이삭은 원한다면 얼마든지 제단 위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순히 결박을 당한 채 번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한 게 아니라 이삭이 스스로 결박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마 27:4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마 27:42)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못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의 군인들을 단숨에 제압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인류에게 참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구원 받지 못한 채 영영히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야만 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도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은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삭은 눈을 감고 죽음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칼든 손이 이삭을 향해 내려 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부르십니다.

(창 22: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창 22:11)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창 22: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응답을 주십니다.

(창 22: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창 22: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믿는 자만이 여호와 이레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을 지킨 아브라함에게 양 한 마리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창 22:15)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창 22:16)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창 22: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 22: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 이레의 복은 이렇게 엄청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 누리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큰 복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